

부모의 양육지식과 실천 도구 개발 예비연구

김경운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A Pilot Study on Korean Version Development of the Rearing Knowledge and Practice for Infant Parents

Kyeong Uoon Kim
Department of Nursing, Seojeong College

요 약 양육지식은 양육실천에 중요한 관련요인이며 양육지식과 양육실천 정도 사정은 영아기 부모에게 중요하다. 저자는 기 개발된 타당성이 검증된 양육지식 척도(CRKS)와 양육실천 척도(CRPS)의 자국내 도입을 위하여 Saramma와 Thomas가 기 개발한 도구들을 채택하였다. 예비연구가 국제적 언어학적 검증단계에 따라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A의 보건소와 B의 오케타니 마사지실을 방문한 영아 부모 20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Wilcoxon Rank Sum Test가 도구의 이해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구의 평균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Cronbach's alpha, Spearman Correlations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3.94(±2.99)세였고 영아의 평균 월령은 3.35(±0.58)개월이었다. CRKS와 CRPS의 이해도는 각각 1.80(±0.65)점과 1.33(±0.54)점으로 사용하기 쉬웠다. CRKS의 평균점수는 22.50(±4.89)점으로 중간점수였고 CRPS의 평균점수는 30.75(±2.04)점으로 높았다. CRPS의 Cronbach's alpha는 식이영역이 0.71, 성장과 발달 영역이 0.64, 청결과 보호영역이 0.68, 영아자극 영역이 0.77였다. CRPS의 영아자극과 CRKS의 성장과 발달 영역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530, p=.016$). 일반적 특성 중에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CRKS 점수가 높았다($p=0.04$). CRKS와 CRPS 척도는 지역사회와 임상실무에서 사용이 간편하고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aring knowledge is a significant factor of relevance for rearing practice, and assessment of rearing knowledge and practice is important for infant parents. The author adopted the Child Rearing Knowledge Scale (CRKS) and Child Rearing Practice Scale (CRPS) that were developed and validated by Saramma & Thoma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inguistic validation process, pilot testing was done based on 20 infant's mothers in one Oketani massage center and one public health center. Descriptive statistic methods and Wilcoxon Rank Sum Test were employed to evaluate the level and compare the mean sco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f the tools.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tested by Cronbach's alpha and Spearman Correlations.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33.94 (±2.99) years and the mean age of babies was 3.35 (±0.58) months. The understanding level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RKS and CRPS was 1.80 (±0.65) and 1.33 (±0.54),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CRKS and CRPS were relatively easy to use. The mean score of the CRKS was 22.50 (±4.89), which was a moderate score, while the mean score of the CRPS was 30.75 (±2.04), which was high. The Cronbach's alpha values of the CRPS were as follows: feeding, 0.71; growth and development, 0.64; cleaning and protection 0.68; infant stimulation, 0.77.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fant stimulation of the CRPS and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RKS ($r=0.530, p=0.016$). The CRKS score of medical staff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n-medical staff ($p=0.04$). The CRKS and CRPS are expected to be used in clinical or community care practice as easy-to-use tools that are easy to respond to.

Keywords : Infants, Parents, Rearing Knowledge, Rearing Practice, Scale, Korean version

*Corresponding Author : Kyeong Uoon Kim(Seojeong College)

Tel: +82-10-5091-2105 email: kimku@seojeong.ac.kr

Received November 1, 2017

Revised (1st November 13, 2017, 2nd November 28,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 부모와 최초로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행동을 모방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내면화한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1]. 영아기는 전체 생애 중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 시기의 경험이 전 생애에 걸쳐 신체, 인지, 사회·정서적 발달에 기반이 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2].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의 건강, 안녕, 그리고 발달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존재인 동시에 보호자로서 그리고 영아의 주양육자로서 영양공급과 수면, 목욕, 운동, 습관 들이기 등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한다[3].

부모의 양육지식은 그들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되면서 오랫동안 부모교육의 주요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4-5]. 현대에 와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어머니들의 가정 내에서 양육의 어려움을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육지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5]. 그러나 인간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부모교육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부모역할을 맡고 있다[3]. 양육행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자신감의 증가는 양육행동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4]. 특히 분만과 함께 시작하는 신생아 양육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여성은 분만 후 모성역할 획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5].

양육지식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들을 살펴보면, Lee와 Lee[5]의 연구 등에서 사용된 MacPhee[9]의 KIDI를 변안하여 사용한 75문항의 도구와, 윤형주[10]가 Larsen & Juhasz[11]의 KCDI를 변안하여 사용한 54문항의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2, 4-6, 12-13]. 이들 도구는 문항이 많고 영아와 유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신생아 양육지식을 묻는 도구로 20문항 전후로 구성되어 연구자가 문헌을 토대로 개발하였거나[7],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에서 해

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8].

부모의 양육실천을 측정하는 도구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들은 문항이 많거나 국제적 언어학적 검증과정의 도구개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구의 자체개발보다는 외국 도구의 자국내 도입은 비교적 경제적이고 국제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다.

따라서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이 검증된 부모의 CRKS와 CRPS 도구의 자국내 도입을 목적으로 도구의 국제적 언어학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외국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CRKS와 CRPS 도구를 이용하여 국제적 언어학적 검증 절차에 따라서 한글판 도구로 개발하고 4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CRK 및 CRP 정도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도구의 이해도를 알아본다.

셋째, 도구의 평균점수 분포를 알아본다.

넷째, 도구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CRKS와 CRPS 점수의 차이를 알아본다.

여섯째, 도구의 한글판 최종 버전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영어판 CRKS와 CRPS 도구를 한글판으로 번역하여 도구의 언어학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론적인 연구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자가 임의 표본 추출로 선정한 A 지역 보건소와 B 지역 오케타니 마사지실을 방문한 4개월 이하 영아를 둔 산모를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연구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고지된 동의서 (informed consent)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2.2 조사방법

2.2.1 조사도구의 개발 절차

본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원저자인 Saramma와 Thomas로부터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과 자문을 받은 후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자료조사기간은 2012년 2월 ~ 2013년 1월이었다.

국제적 언어학적 검증단계에 따른 CRKS와 CRPS 도구 개발 절차[14]는 다음과 같다.

- 영어판 CRKS와 CRPS 번역 - 자문위원 (간호학과 교수 2인, 국문학자 1인) 검토
- 제1 한글 번역본 CRKS와 CRPS 완성 - 자문위원 (간호학과 교수 2인, 국문학자 1인) 검토
- 제2 한글 번역본 CRKS와 CRPS 완성 - 예비조사, 연구대상자의 인지된 결과보고, 전문가 집단 검토 및 수정
- 제3 한글 번역본 CRKS와 CRPS 완성 - 역번역(2중 언어를 사용하는 통역사 1명), 전문가 집단 검토 및 수정
- K-CRKS, K-CRPS 완성 - 원저자 검토 및 승인

2.2.2 조사도구의 사용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CRKS와 CRPS 도구는 Saramma와 Thomas가 개발하였으며[15], CRKS 도구는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CRPS는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CRKS 도구의 하부영역은 식이 6개 항목, 성장과 발달 4개 항목, 청결과 보호 7개 항목, 영아 자극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40점 만점으로 오지선다형 질문에 대한 정답인 경우 2점, 오답은 0점이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PS 도구의 하부영역은 식이 7개 항목, 성장과 발달 2개 항목, 청결과 보호 12개 항목(세부 항목으로 아기의 위생 5개 항목, 감염예방 3개 항목, 아기의 손상 예방 4개 항목), 영아 자극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34점 만점으로 예와 아니오로 답하는 경우에 실천함이 1점, 실천하지 않음이 0점이며 Likert 척도로 1점에서 4점으로 나타내는 질문이 3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천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식이영역이 0.71, 성장과 발달영역이 0.64, 청결과 보호영역이 0.68, 영아자극 영역이 0.77이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한글 번역본 CRKS 이해도 20문항, 한글 번역본 CRPS 이해도 25문항, 도구의 이해도에 관한 주관식 4문항(도구사용 소요시간, 도구에 대한 다른 의견 등을 기술하도록 함) 한글 번역본 CRKS 20문항, 한글 번역본 CRPS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3 분석방법

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언어학적 검증단계에 따른 도구 개발 절차에 따라서 CRKS와 CRPS의 한글판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CRKS와 CRPS 도구의 이해도, CRKS와 CRPS의 평균점수는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s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 및 양육실천점수의 차이는 Wilcoxon Rank Sum Test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R-commander version 3.4.1을 사용하였다.

3. 분석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20명으로, 대상자 자녀원이 아기 어머니였으며 31~40세가 16명(84.21%)였다. 아기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94세(±2.99)였으며 아기의 월령은 평균 3.35개월(±0.58)이었고, 2~3개월 아기는 12명(60.00%)였다. 아기의 성별은 여아가 10명, 남아가 10명으로 각각 50%였으며, 17명(85.00%)의 아기가 첫째 아기였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16명(80.0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대상자가 종교를 가진 경우가 12명(60.00%)였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전문대-대졸이 11명(55.00%)였고, 산전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14명(70.00%)였다. 대상자의 직업이 비의료인인 경우가 17명(85.00%)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Age of Mother (years)	21-30	3 (15.79)	32.94 (±2.99)
	31-40	16 (84.21)	
	Missing	1 (-)	

Age of child (months)	2-3	12 (60.00)	3.35 (±0.58)
	4	8 (40.00)	
Sex of child	F	10 (50.00)	
	M	10 (50.00)	
Family type	Nuclear	16 (80.00)	
	Extended	4 (20.00)	
Birth order	1st	17 (85.00)	
	≥2nd	3 (15.00)	
Religion	Yes	12 (60.00)	
	No	8 (40.00)	
Education	College/University	11 (55.00)	
	Graduate school	9 (45.00)	
	Yes	6 (30.00)	
Prenatal education	No	14 (70.00)	
	Medical staff	3 (15.00)	
Job	Non medical staff	17 (85.00)	

3.2 조사도구의 이해 정도

한글 번역본 CRKS와 CRPS의 각 문항 이해도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해가 아주 쉬움(1점)에서 아주 어려움이 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이해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이해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한글 번역본 CRKS의 이해도 평균은 1.80(±0.65)점으로 비교적 쉬움을 의미하였다.

한글 번역본 CRPS의 이해도 평균은 1.33(±0.54)점으로 매우 쉬움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Table 2. Understanding level of Korean version of the CRKS and CRPS (N=20)

	Ques-tions	Understanding level Mean(SD)	Mini-mum	Maxi-mum
CRKS	20	1.80(0.65)	1	4
CRPS	25	1.32(0.54)	1	4

CRKS: Child Rearing Knowledge Scale
CRPS: Child Rearing Practice Scale

3.3 양육지식과 양육실천 평균 점수

CRKS의 평균점수를 Table 3에서 살펴보면, 전체 평균점수는 22.50(±4.89)점으로 양육지식 정도가 중간 점수에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 하부영역 점수는 식이 영역이 평균 7.30(±1.63)점, 성장과 발달 영역이 평균 2.60(±1.72)점, 청결과 보호 영역이 8.60(±3.25)점, 그리고 영아 자극이 4.00(±1.71)점임을 알 수 있었다.

CRPS의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4점까지이며 전체 평균점수는 30.75(±2.04)점으로 양육실천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각각 하부영역 점수는 식이 영역이 평균 11.20(±1.10)점, 성장과 발달 영역이 평균 1.50(±0.60)점, 청결과 보호 영역이 14.15(±1.08)점, 그리고 영아 자극이 3.90(±0.31)점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Mean score of Korean version of the CRKS and CRPS (N=20)

	Total	Feeding	Growth & develop-ment	Clean & Protec-tion	Infant stimu-lation
CRKS	22.50	7.30	2.60	8.60	4.00
Mean±SD	±4.89	±1.63	±1.72	±3.25	±1.71
CRPS	30.75	11.20	1.50	14.15±	3.90
Mean±SD	±2.04	±1.10	±0.60	1.08	±0.31

3.4 조사도구의 상관관계

CRKS와 CRPS 점수의 상관관계를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CRPS의 영아자극 하부영역은 CRKS의 전체영역(R=.526, p=.017)과 성장과 발달 하부영역(R=.530, p=.016)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RKS and CRPS (N=20)

	CRKS r(p)				
	Total	Feeding	Growth & develop-ment	Clean & Protec-tion	Infant stimu-lation
CRPS					
Infant stimu-lation	.526 (.017*)	.310 (.184)	.530 (.016*)	.401 (.07)	.398 (.08)

* p < .05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과 양육실천 점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 및 양육실천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의료인이 비의료인보다 CRKS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p=.016), 나머지 변수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CRPS 점수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30세 이하 산모가 31세 이상 산

모보다, 2-3개월 아이를 가진 산모가 4개월 아이를 가진 산모보다 CRKS 점수가 높았다. 여아보다는 남아를 가진 산모가, 핵가족보다는 대가족의 형태가, 출생순위가 첫아이보다는 둘째아이 이상을 가진 산모가, 무교보다는 종교를 가진 산모가, 전문대-대졸보다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산모가 CRKS와 CRPS 점수가 높았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mean sco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

Variables	n	CRKS		CRPS		
		Mean ±SD	p	Mean ±SD	p	
Age of mother	21-30 years	3	25.33 ±2.31	0.31	30.66 ±0.57	0.90
	31-40 years	16	22.25 ±5.16		31.06 ±1.91	
Age of child	2-3 months	12	23.17 ±5.08	0.55	31.00 ±2.17	0.34
	4 months	8	21.50 ±4.75		30.37 ±1.92	
Sex of child	F	10	21.40 ±5.17	0.44	30.20 ±2.25	0.21
	M	10	23.60 ±4.59		31.30 ±1.76	
Family type	Nuclear	16	21.88 ±4.81	0.44	30.43 ±2.03	0.19
	Extended	4	25.00 ±5.03		32.00 ±1.82	
Birth order	1st	17	22.18 ±4.60	0.66	30.58 ±2.06	0.45
	≥2nd	3	24.67 ±7.02		31.66 ±2.08	
Religion	Yes	12	23.50 ±4.13	0.45	31.00 ±2.17	0.34
	No	8	21.00 ±5.75		30.37 ±1.92	
Education of mother	College/ university	11	21.09 ±4.92	0.21	30.45 ±1.43	0.44
	Graduate school	9	24.22 ±4.52		31.11 ±2.66	
Prenatal education	Yes	6	21.66 ±5.42	0.21	30.16 ±0.98	0.35
	No	14	22.85 ±4.81		31.00 ±2.35	
Job	Medical staff	3	28.00 ±4.00	0.04*	30.80 ±2.86	0.59
	Non medical staff	17	21.53 ±4.45		30.73 ±1.83	

* p <.05

3.6 최종 한국어 번역본 양육지식과 양육실천 척도

제1 한글 번역본은 2명의 번역가가 제시한 도구 내용의 개념이 100% 일치할 때까지 자문 회의를 통하여 분

석을 하였다. 그 결과, CRKS 문항1, 2, 9의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문항12의 보기4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로 수정하였다. 문항8, 9, 10의 질문에서 ‘정상적으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문항11의 보기3은 띄어쓰기 수정, 문항 20의 보기3은 수동형 동사로 정정하였다. CRPS 문항1, 2, 4, 11, 12의 질문을 영문법 해석으로 인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자연스러운 한글 질문 형식으로 정정하였으며, 문항7은 ‘육구’라는 표현을 ‘필요한 것’으로 수정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문항10의 질문에서 ‘깨끗하게’를 ‘청결하게’로 정정하였고 문항21의 질문에서 조사를 정정하였다.

제2 한글 번역본은 예비조사에서 도구의 수정을 요하는 문항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자문회의를 통하여 완성하였다. CRKS 문항6의 보기4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문항11, 12, 15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질문으로 정정하였다. CRPS 문항6, 20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질문으로 정정하였다.

제3 한글 번역본은 역번역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은 후, CRKS의 문항6의 보기 ‘생선’을 ‘생선과 다진 고기’로 정정하였다.

최종 한글 번역본은 원 도구에서 한글 번역본 도구로 수정된 부분들을 원저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설명하고 승인(2017년 9월)을 받아서 완성하였다. 그 결과는 Appendix 1, Appendix 2와 같다.

4. 고찰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아동발달과정에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수록 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아동을 양육할 것이다[16]. 윤형주[10]의 연구에서 아동발달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부모일수록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면서 아동의 발달을 잘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육지식은 양육행동에 중요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나며[17-18],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양육지식 제공과 양육 실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양육지식과 양육실천 정도 사정은 영아기 부모에게 중요하며 본 연구는 CRKS와 CRPS의 자국내 도입을 목적으로 한글판 도구의 국제적 언어학적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32.94(±2.99)세로 이는 Saramma와 Thomas [15]의 연구 대상자보다도 연령이 훨씬 많았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이며 결혼연령이 늦어짐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모의 학력 또한 늦혼으로 인하여 학력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젊은 층의 산모가 연령이 있는 산모보다 양육지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사회진출이 활발하여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젊은 층의 부모가 연령이 있는 부모보다 쉽게 정보를 습득하여 양육지식이 더 높은 것[16, 19-20]으로 사료된다.

한글 번역본 CRKS의 이해도 평균은 1.80 (±0.65)점으로 비교적 쉬움을 의미하였다. 이해도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11번과 16번 문항이었으나 5점 중 2.00점으로 중간점 이하였다. 20개의 문항 전체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20문항을 푸는데 소요된 시간은 5.05(±2.21)분이었다. 한글 번역본 CRPS의 이해도 평균은 1.33(±0.54)점으로 매우 쉬움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이해도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6번과 7번 문항이었으나 5점 중 1.55점으로 중간점 이하였다. 25개의 문항 전체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문항을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65(±1.39)분이었다. 따라서 본 한글 번역본 CRKS와 CRPS 도구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응답하였으며 도구의 작성시간도 5분 이하로 비교적 사용하기가 간편한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본 CRKS 도구에 대한 평균점수가 중간정도(22.50±4.89)로 낮은 이유는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연령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연령이 어릴수록,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양육지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6, 19].

CRPS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식이영역이 0.71, 성장과 발달영역이 0.64, 청결과 보호영역이 0.68, 영아 자극 영역이 0.77로 신뢰할만 하였다. CRKS와 CRPS 도구의 타당도를 위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CRPS 도구의 영아자극 하부 영역은 CRKS 도구의 성장과 발달과 유의한 상관관계($r=.530, p=.016$)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장과 발달에 대한 양육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영아자극에 대한 양육실천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lizabeth[21]의 예비조사에서 양육지식과 양육실천

과의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Saramma와 Thomas[15]의 연구결과에서는 CRKS와 CRPS의 상관관계 연구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 및 양육실천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의료인이 비의료인보다 양육지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지만($p=.016$), 양육실천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aramma와 Thomas[15]의 연구에서 의료인의 CRKS 평균점수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상기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CRPS의 영아자극과 CRKS의 성장과 발달 영역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r=.530, p=.016$), 일반적 특성 중에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서 유의하게 CRKS 점수가 높았다($p=0.04$). CRKS와 CRPS 도구는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신뢰할만하며 편리한 도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한글 번역본 CRKS와 CRPS 도구를 통하여 향후 임상 또는 지역사회 간호실무에서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지식 및 실천 정도를 측정하는 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낙태, 선천성 결함 아이 버려짐, 입양 등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둔 부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미혼모 출산 등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서 부모됨의 준비를 위한 사정도구으로써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치료적 중재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O, Y. H, Um, J. A, "Children and their Parents", Dong Hyun Inc., Seoul, 1997.
- [2] Lee, K. H,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infant development", Master's thesis, Kyoung-Hee University, 2009.
- [3] Han, K. J, Bang, K. S, "Correlations of Infant

- Temperament,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Child-rearing Environment”,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6, no. 2, pp. 132-143, 2000.
- [4] Yoon, H. J, Cho, B. H, “Maternal knowledge of child-rear home environment”, *J. Future Early Lifehood Education*. vol. 11, no. 2, pp. 59-88, 2004.
- [5] Lee, J. Y, Lee, S. H, “The acquisition of paren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level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J.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 31, no. 4, pp. 179-197, 2010.
- [6] Lee, S. M, Jang, J. M, “A study on parent efficacy and child rearing knowledge of parents in pregnancy”, *J. Future Early Lifehood Education*. vol. 16, no. 1, pp. 251-273, 2009.
- [7] Lee, H. J, Lee, A. A, Kim, M. H, Kim, Y. K, Park, N. H, “A study of parental knowledge and confidence in Newborn Care”, *J.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 10, no. 3, pp. 262-271, 2004.
- [8] Kim, E. H, Lee, E. J, Kim, M. J, Park, D. Y, Lee, S. H,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care self-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J.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0, no. 1, pp. 78-87, 2010.
DOI: <https://doi.org/10.4040/jkan.2010.40.1.78>
- [9] MacPhee, D, “Manual :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1981.
- [10] Yoon, H. J,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knowledge of child-rearing and home environment”,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2.
- [11] Larsen, J, Juhasz, A,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vol. 21, pp. 39-54, 1986.
- [12] Hong, J. A,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gender and age of the moon, mother's rearing knowing and rearing efficacy, and infant development”,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10.
- [13] Min, H. S, Moon, Y. K,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stress, maternal style and infant development”,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vol. 1, pp. 579-593, 2010.
- [14] Koller M, West K, “Linguistic Validation Manual for Patient-Reported Outcomes (PRO)”, *Quality of Life Research*. vol. 14, no. 7, pp. 1791-1792, 2005.
DOI: <https://doi.org/10.1007/s11136-005-5367-1>
- [15] Saramma, P. P, Thomas, V. S, “Child rearing knowledge and practice scales for women with epilepsy”, *Annual Indian Academy of Neurology*, vol. 13, pp. 171-179, 2010.
DOI: <https://doi.org/10.4103/0972-2327.70877>
- [16] Lee, M. A, “The Effects of Parenting Knowledge and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their Parenting Efficacy”,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0.
- [17] Lee, J. Y,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yle of Mothers with Infant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7, no. 5, pp. 35-48, 2009.
- [18] Lee, S. E, Park, S. Y, “Parenting Knowledge, Attributions and the Perceptions of Parenting Roles as They Relate to the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towards Their Infa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19, no. 2, pp. 131-149, 2012.
- [19] Park, D. Y, “Knowledge and practice of Infant's Mothers about Weaning and parenting stres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6.
- [20] Hong, S. O, Kim, S. H,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According to the Mother's Background”,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9, no. 6, pp. 55-71, 2008.
- [21] Elizabeth K. E, “Nutrition and Development”, 3th ed, Paras Medical Publisher, Hyderabad, 2004.

김 경 윤(Kyeong Uoon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08년 1월 :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후)
- 2016년 3월 ~ 현재 :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생명윤리, 스트레스관리

Appendix 1. Korean version of the CRKS

양육지식 척도

<p>1. 신생아가 출생 후 제일 처음에 먹는 것은? ① 끓여서 식힌 물 ② 설탕물 ③ 모유 ④ 다른 음료수 ⑤ 모르겠다.</p> <p>2. 정상분만한 신생아에게 언제부터 모유수유를 실시해야 하는가?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2시간 이내 ④ 4시간 이내 ⑤ 모르겠다.</p> <p>3. 모유수유는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가? ① 6개월까지 ② 1년까지 ③ 2년까지 ④ 아기가 원하는 대로 ⑤ 모르겠다.</p> <p>4. 바른 자세로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유방의 부위는? ① 유두만 ② 유두와 유륜의 일부분 ③ 유두와 유륜의 대부분 ④ 전체 유방 ⑤ 모르겠다.</p> <p>5.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생후 4개월 ② 생후 6개월 ③ 생후 1년 ④ 언제든지 상관없음 ⑤ 모르겠다.</p> <p>6. 1세 영아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은? ① 쌀과 야채 ② 생선과 다진 고기 ③ 과일 ④ 가족들이 먹는 모든 종류의 음식 ⑤ 모르겠다.</p> <p>7. 아기의 체중이 출생 시의 2배가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① 3개월 ② 5개월 ③ 9개월 ④ 1년 ⑤ 모르겠다.</p> <p>8. 아기가 머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① 2개월 ② 4개월 ③ 6개월 ④ 1년 ⑤ 모르겠다.</p> <p>9. 아기가 도움 없이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 ① 4개월 ② 6개월 ③ 8개월 ④ 10개월 ⑤ 모르겠다.</p> <p>10. '마', '파'와 같은 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① 4,6개월 ② 6,8개월 ③ 8,10개월 ④ 1년 ⑤ 모르겠다.</p>	<p>11. 아기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① 예방접종을 한다. ② 매일 목욕을 시킨다. ③ 감염된 사람을 멀리 한다. ④ 이상 모두 ⑤ 모르겠다.</p> <p>12. 아기에게 목욕을 시킬 때 아기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행동은? ① 코를 보호한다. ② 물 온도를 확인한다. ③ 귀를 보호한다. ④ 아기의 몸을 빨리 말린다. ⑤ 이상 모두 ⑥ 모르겠다.</p> <p>13. 아기의 옷을 세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① 물과 비누로 빨아 그늘에 말린다. ② 물과 비누로 빨아 햇빛에 말린다. ③ 다른 옷과 같은 방법으로 세탁한다. ④ 세탁 전에 항상 향균용액에 담근다. ⑤ 모르겠다.</p> <p>14. 영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① 넘어지거나 떨어짐 ② 이물질 흡인 ③ 물에 빠짐 ④ 이상 모두 ⑤ 모르겠다.</p> <p>15. 영아의 질식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은? ① 모유 수유하는 동안 아기의 콧구멍을 막지 않도록 한다. ② 털 장난감을 아기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③ 비닐주머니를 아기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④ 이상 모두 ⑤ 모르겠다.</p> <p>16. 영아기에 반복해서 맞지 않아도 되는 예방접종은? ① BCG ② 경구용 소아마비 ③ 간염 ④ DPT ⑤ 모르겠다.</p> <p>17. 영아가 설사를 할 때 수유는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① 모유수유를 계속한다. ② 물을 많이 먹인다. ③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준다. ④ 이상 모두 ⑤ 모르겠다.</p> <p>18. 아기는 무엇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는가? ① 장난감 놀이 ② 엄마와의 상호작용 ③ 가족과 상호작용 ④ 이상 모두 ⑤ 모르겠다.</p> <p>19. 아기의 정서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모유 ② 엄마가 주는 음식 ③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 ④ 이상 모두 ⑤ 모르겠다.</p> <p>20. 아기에게 언어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① 장난감을 준다. ② 따뜻하게 해준다. ③ 말하고 노래해준다. ④ 안고 도닥여준다. ⑤ 모르겠다.</p>
--	---

Appendix 2. Korean version of the CRPS

양육실천 척도

1. 아기에게 초유를 먹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아기의 옷을 비누와 물로 빨고 햇볕에 말리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정상분만한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모유수유를 시작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5. 아기를 돌보기 전에 손을 씻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현재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 감염된 사람이 아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아기에게 수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모유만 <input type="checkbox"/> 모유+분유 <input type="checkbox"/> 분유만 <input type="checkbox"/> 분유+우유	17.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키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이유식을 시작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8. 추울 때 아기를 잘 덮어주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아기의 수유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자주 수유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항상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하지 않음	19. 밤에 아기와 같은 방에서 주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밤 동안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 아기를 눕힐 때 너무 폭신하지 않은 매트에 눕히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아기의 몸무게를 자주 재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아기에게 어떤 종류이든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아기의 정상발달을 점검하십니까? (사회적 미소, 머리 가누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2. 아기가 울 때 달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아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 아기에게 말을 걸고, 가족들을 소개시켜줍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배변을 하면 즉시 기저귀를 갈아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항상 <input type="checkbox"/> 자주 <input type="checkbox"/> 가끔 <input type="checkbox"/> 하지 않음	24. 색이 있고 소리 나는 장난감으로 아기와 놀아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아기목욕은 직접 시키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5. 아기를 재울 때 자장가나 노래를 불러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아기의 옷을 직접 입히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